

## 알러젠 除去 옷나무 抽出物 投與로 好轉된 乳房癌 환자 1례

김초영\* · 박재우\*\* · 윤성우\*\*\* · 정현식\* · 최원철\*,\*\*\*

\*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M·μ 통합암센터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실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체질의학과

### Abstract

#### A case of breast cancer Patient Treated with Allergen Removed Rhus Verniciflua Stokes(ARV)

Cho-Young Kim\*, Jae-Woo Park\*\*, Seong-Woo Yoon\*\*\*, Hyun-Sik Jung\*, Won-Cheol Choi\*\*\*

\* M-μ integrative Cancer Center,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eo Medical Center

\*\* Dept. of Oriental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Breast cancer is common in West and Incidence of breast cancer has increased in Korea. According as conventional western medical treatment, breast cancer patient received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 and anti cancer chemotherapy.

In this case report, We introduce a case of breast cancer patient who showed lung metastasis(metastatic adenocarcinoma) after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 4 years before the diagnosis of relapse. After lung metastasis of breast cancer, the patient received 4th chemotherapy and refused to get more conventional western medical treatment including chemotherapy. After 24 month of traditional oriental medical treatment using allergen removed Rhus Verniciflua Stokes(ARV), however, the size of cancer mass decreased and the patient showed improved condition. Further case study will be needed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 of ARV on breast cancer patient.

**Key Words** : breast cancer, metastasis, MRM, ARV

## I. 序 論

유방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중앙암 등록사업에 의하면 2001년부터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치고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2년 7,359건이 새로 발생하여 여성암 중 16.8%를 차지하였다.<sup>1)</sup>

유방암 치료의 근간은 근치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나 자가검진 및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 발견을 하여 근치적인 수술을 시행하여도, 액와 림프절이 음성인 경우 약 20%, 액와 림프절이 양성인 경우 60%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한다. 수술 전 혹은 후의 보조항암요법은 근치적인 수술과 함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sup>6)</sup>

유방암은 한의학에서 乳癌, 石癰 등으로 불리우며, 《東醫寶鑑·外形編》에서 “結核久成癰巖 婦人憂怒抑鬱 時日積累 脾氣消沮 肝氣橫逆 遂成隱核如贅基子 不通不痒 十數年後 方爲瘡陷 名曰癰巖(乳癌)以其瘡形嵌凹似巖穴也不可”라 하였으며<sup>9)</sup>, 朱震亨은 活血祛瘀藥, 理氣藥등을 多用하여 치료한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行血祛瘀하는 效能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乾漆은 漆樹科에 속한 臭나무 수지를 건조한 것으로 《東醫寶鑑》에서는 ‘消瘀血 主女人經脈不通疝瘕 利小腸 去蟲 破堅積 止血暈 殺三蟲 治傳戶勞’라記載되어 있다<sup>20)</sup>.

본 증례의 著者는 2000년 12월1일 lt. breast ca (invasive ductal cancer) stage II 진단받고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시술 과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받은 후 2004년 4월 lungmets 진단 받고, 2005년 5월 pleural effusion 있어 chemotherapy 받던 중 중단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알러젠이 제거된 臭나무 抽出物(ARV: Allergen Removed Rhus Verniciflua Stokes)을 移用한 韓方治療를 실시하여 良好한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II. 證 例

1. 환자 : 김 ○ ○, 44세 여성
2. 주소증 : 左側 乳癌
3. 발병일 : 2000년 12월 1일 진단
4. 과거력 : 위궤양
5. 현병력 : 상기 44세 된 여자환자로 2000년 12월1일 서울백병원에서 lt. breast ca (invasive ductal cancer) stage II 진단받고 2001년 1월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시행 후 chemotherapy을 서울백병원에서 9회 받고 인하대병원에서 radiation therapy 1회 받았다. 이후 인하대병원에서 6개월마다 외래 f/u하며 지내다 2004년 4월 심한 감기 증상으로 인하대병원내원 검사 후 lung mets.(metastatic adenocarcinoma) 진단받고 이후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다 2005년 5월 pleural effusion 있어 chemotherapy 6회 시행 예정이었으나 4회 시행 받은 후 환자 본인이 chemotherapy 거부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광혜원 한방병원에서 한방치료 시작하고 2007년 1월 30일 慶熙大學校 東西新醫學病院 東西M·μ 統合癌센터 韓方內科 外來 內院, 韓方治療를 지속하였다.
6. Impression : lt. breast ca with lung mets
7. 검사소견
  - ① 신체 활력 증후(2007/9/5) : 혈압 96/56mmHg, 맥박수 76회/분, 체온 36.2℃
  - ② 일반 병리 검사(2007/01/30)
    - 1) 일반혈액검사 : RBC 3.86( $\times 10^6/\mu\text{l}$ )  
ESR 30 (mm/h)
    - 2) 일반화학검사 : Cholesterol 208(mg/d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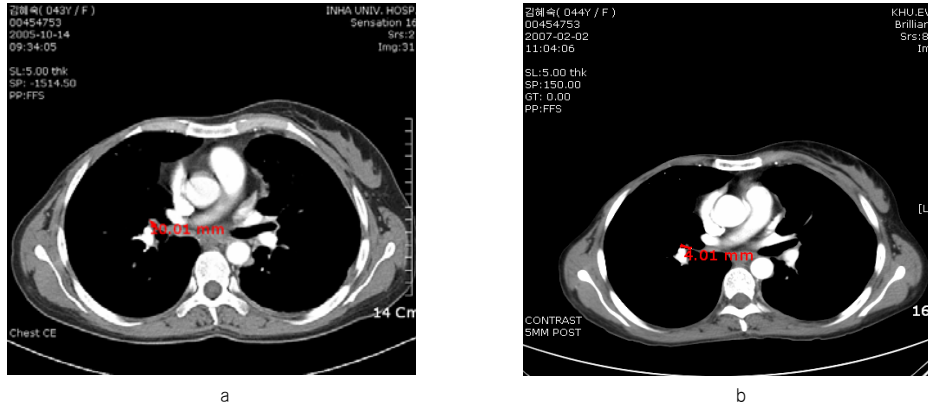


Fig. 1. Chest CT Imaging of the patient. The size of mass decreased after ARV intake. straight line denoted by the author. a.(2005. 10. 14) b.(2007.02.02)>

8. 치료방법

- ① 한약치료 : 大韓民國 特許 0504160에記載된 方法에 의하여 處理하여 옷나무 抽出物을 만들었다. 에탄올 용매를 이용하여 90-95도, 용매의 배수는 10배수, 시간은 6시간으로 하여 추출한 알러젠(Urushiol)이 제거된 옷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2005년 9월 1일 부터 현재까지 持續적으로 복용하였다.
- ② 치료경과 : 2004년 4월 19일 시행한 Chest-CT결과 Left side에 많은 양의 pleural effusion이 있으며 multiple한 pleural nodule들이 동반되어 있어 malignant pleural effusion의 소견을 보였으며, Right hilum과 subaortic, subcarinal area에 mediastinal lymphadenopathy가 관찰되고 있었다. 2005년 10월 14일 실시한 Chest-CT와 비교분석결과, Left에 있던 많은 양의 pleural effusion은 거의 소실되었고 nodularity도 이전보다 약간 호전되었으며, Right hilum과 subaortic, subcarinal area에 있는 lymphadenopathy도 이전보다 크기가 약간 감소하였다는 판독결과가 나왔다.

2005년 10월 14일 실시한 Chest-CT와 2007년 2월2일 CT 영상의 비교결과 tumor의 크기가 10.01mm에서 4.01mm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local recurrence로 의심되는 soft tissue opacity 보이지 않고 Mediastinum과 axillary region에 의미 있게 커진 lymph nodes 보이지 않는다는 판독결과가 나왔다.(Fig. 1)

Ⅲ. 考 察

유방암은 서구에서 가장 흔한 암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 및 생활 패턴의 변화로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국 중앙 암 등록사업에 의하면 2001년부터 위암과 자궁경부암을 제치고 여성암 중 1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2002년 7,359건이 새로 발생하여 여성암 중 16.8%를 차지하였다.<sup>1)</sup>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 1985년에서 1995년 사이 유방암 사망률 추이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사망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유방암의 위험인자들로는 유방암가족력, 출산력, 초경연령과 규칙적인 배란주기, 폐경연령, 식생활습관, 알코올섭취, 호르몬제제의 사용, 방

사선 노출, 이형성과증식 및 증식성 양성유방질환 등 여러 인자들이 알려져 있지만,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환자의 약 70%에서는 어떠한 위험인자도 찾아볼 수 없다.<sup>3)</sup> 유방암의 병기를 AJCC<sup>4)</sup> 분류에 따르면 0기에서 IV기로 분류하는데, 제 I 기는 偏側乳房에 생기고, 한쪽 유방 내에 堅硬한 小結節을 手掌으로 촉지할 수 있으나 腋窩淋巴腺의 결절은 없는 시기를 말한다. 腫瘍은 처음에는 잘 움직이나 주위조직과 유착하면 잘 움직여지지 않으며, 腫瘍을 위로 치켜 올리면 그 부위에 함몰이 생기며 유두는 함몰되어 있다. 암세포 크기는 2cm 이내이다. 제 II 기는 유암이 腋窩部로 轉移하여 액와에서 몇 개의 임파선 결절을 발견할 수 있는 시기로 주위와의 유착이 없어서 잘 움직여진다. 제 III 기는 腫瘍은 피부와 흉벽에 유착되어 오무라들고 잘 움직여지지 않으며 유두는 현저하게 함몰되고 반대측 유방보다 올라 붙으며, 유방전체도 올라 붙는다. 액와 임파선결절도 주위와 유착하여 혈관 신경 피부 등을 압박하며, 암세포 크기는 5cm 이상이다. 제 IV 기는 遠隔轉移가 되는 시기로 頸部, 肋膜, 肺, 肝, 骨 등으로 확산되고 반대 측 유방에도 암이 생긴다.<sup>4)</sup>

유방암의 예후는 수술시 원발 종양의 크기와 액와임파절 전이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며 예후인자로서의 종양크기의 역할은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만 예후와 비례적인 관계를 보인다.<sup>5)</sup>

유방암의 국소치료방법으로 1894년 Halsted는 근치유방절제술을 시행함으로써 유방암 수술의 새로운 장을 열었고 변형근치유방절제술(MRM: modified radical mastectomy)은 유방암의 재발이 대부분의 경우 수술술식이 부적절한 이유라기보다 진단 당시 전신성 종양의 파종에 기인한다는 개념이 대두되면서부터 시행이 증가하여 현재 침윤성 유방암 환자에서 가장 많이 시술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고에 의하면 근치유방절제술과 변형근치유방절제술간의 생존율, 무병

생존율, 국소재발률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로 시술되는 국소치유방법은 크게 변형근치유방절제술과 유방보존술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유방보존술식은 원발병소와 주위 일부 유방조직을 일정한 변연을 두고 절제하며, 액와 림프절제를 시행하는 방법이다. 유방보존술식의 목적은 미용을 고려하여 유방을 남겨놓고 국소병소를 치유하고자 함이다.<sup>3)</sup>

이처럼 유방암 치료의 근간은 근치적인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가검진 및 선별검사를 통해 조기발견을 하여 근치적인 수술을 시행하여도, 액와 림프절이 음성인 경우 약 20%, 액와 림프절이 양성인 경우 60% 이상에서 재발을 경험하게 한다. 수술 전 혹은 후의 보조항암요법은 근치적인 수술과 함께 재발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sup>6)</sup>

1976년 Italy의 Milan Group이 유방암 수술 후 액와 림프절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CMF(cyclophosphamide, methotrexate, 5-fluorouracil) 복합화학요법을 시행하여 무병생존기간 및 전체 생존율이 의미 있게 연장되는 것을 보고한 후, 수술 후 액와 림프절 양성인 환자에서는 보조항암요법이 표준 치료로 인정받게 되었다.<sup>7)</sup> 실제로 유방 절제술 후 보조 화학요법 및 호르몬요법을 시행함으로써 재발률이 40-50% 감소하고, 생존율이 25-30% 이상 의미 있게 증가되었다.

유방암 수술 후 보조 호르몬요법의 시행여부는 호르몬 수용체의 발현여부에 따라 결정이 된다. 호르몬 수용체, 즉 에스트로젠 수용체 혹은 프로게스테론 수용체가 양성인 경우, 호르몬 수용체를 차단하는 제제인 tamoxifen을 사용함으로써 사망률을 약 30%가량 감소시킬 수 있었다.<sup>8)</sup>

수술 후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전이성 유방암으로 사망했었을 1/3이상의 환자들이 적절한 전신적 항암화학요법으로 치료받은 후 무병상태로 지낼 수 있게 되었으나 조기 유방암뿐

아니라 진행성 유방암의 치료에 새로운 항암약제의 효과에 대한 발표가 계속 되는 것으로 보아, 아직도 보다 세포독성은 약하면서, 항암성은 증가시키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다.<sup>2)</sup>

유방암은 한의학에서 乳癌, 石癰 등으로 불리우며, <東醫寶鑑·外形偏>에서 “結核久成 姦巖 婦人憂怒抑鬱 時日積累 脾氣消沮 肝氣橫逆 遂成隱核如贅基子 不通不痒 十數年後 方爲瘡陷 名曰癭巖(乳癌)以其瘡形嵌凹似巖穴 也不可”라 하였으며<sup>9)</sup>, 朱震亨은 活血祛瘀藥, 理氣藥등을 多用하여 치료한다고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乳癌의 병인, 병리를 살펴보면 <東醫臨床婦人科學>에서 肝氣鬱結, 氣鬱化火, 久潰虛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sup>10)</sup>

유암에 관한 치료법을 문헌으로 고찰해보면, 변증분형에 따른 補法 위주의 內治法, 고약을 이용한 附貼法과 艾灸法 등의 外治法, 氣攻道引法 등의 운동요법, 정지요법 등의 心理療法까지 다양하게 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11)</sup>

유방암의 한의학적 치료에 관한 논문을 고찰해보면 봉독약침액과 한약물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다.

여 등은<sup>12)</sup> 봉독약침액 Beevenom의 인체 유방암세포주인 MCF-7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Beevenom의 영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Beevenom의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MCF-7유방암세포의 생존율 및 성장률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런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는 암세포의 심한 형태적 손상에 의한 부착력 상실과 연관이 있었으며, 이는 Beevenom에 의한 암세포의 apoptosis유발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손 등은<sup>13)</sup> 단삼 에탄올추출물(100-1,200 μg/ml)의 유방암 발생 및 전이 억제효과를 측정 한 결과, 유방암의 대표적인 발암물질인 DMBA에 의해 유도된 cytochrome P450 1A1 효소활성 억제효과는 10.1-94.8%로, aromatase 활성 억제

효과는 9.3-77.5%로 농도의존적인 억제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유방암 발생에 중요한 요인으로 증명된 Ornithine decarboxylase(ODC) 활성이 단삼 에탄올추출물에 의하여 저해되었으며 특히, 900과 1,200 μg/ml에서 ODC 활성 저해물질인 DFMO의 억제율 41.6%보다 더 높은 71.9와 76.1%의 억제율이 측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서 등은<sup>14)</sup> 淸肝解鬱湯이 인체 유방암세포인 MCF-7 세포에 대한 작용을 살펴본 결과 100μg/ml 의 농도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으며 이는 淸肝解鬱湯이 고농도에서 유방세포암에 대해 직접적인 세포독성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환자에게는 漆樹 또는 漆皮라고도 불리는 옷나무(*Rhus verniciflua* Stokes)에서 유래한 추출물이 투여되었는데 옷(乾漆)은 性味が 辛溫鹹하고 肝脾胃大小腸으로 歸經한다고 알려졌으며 예로부터 破血하고 胃腸의 積滯를 疏散시키므로 주로 瘀血, 積聚, 癥瘕 및 冷心痛 등에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암치료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 후 옷나무 추출물 및 성분이 실험적으로 세포증식억제, 자연고사 유도작용, 항혈전 및 항산화 작용 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up>15)</sup>

최근 건칠(*Rhus verniciflua* Stokes)의 종양치료에 대한 응용과 연관된 보고들이 있었는데, Kim 등<sup>16)</sup>은 옷나무 에탄올층 50μg/ml 의 농도에서 AGC 위암주에 대해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고 Kitts 등<sup>17)</sup>은 BNL CL2 마우스 간세포에 대해 미토콘드리아 의존성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Lee 등<sup>18)</sup>도 옷나무 추출 flavonoid 층이 사람의 osteosarcoma에 대해 capsapase-8, cytochrome c 등을 활성화시키고 Bcl-2를 억제하며 apoptosis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Jang et al[19]의 연구에 따르면 옷나무에서 추출한 flavonoid 성분 중 일부를 추출하여 RCMF (the RVS chloroform-methanol fraction)라고 명명하고 연구한 결과 human osteosarcoma cell에서 성장억제 및 apoptosis 효과가 관찰되었다.<sup>20)</sup>

본 증례의 著者は 2000년 12월1일 Lt. breast ca (invasive ductal cancer) stage II 진단받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근치유방절제술받은 후, 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요법 받은 후 6개월마다 f/u 하던 중, 2004년 4월 lungmets 진단받고 2005년 5월 pleural effusion 있어 인하대병원에서 chemotherapy 6회 시행 예정 중인 환자였다.

항암화학요법을 4회 시행하던 중 양방적 처치를 원치 않아 치료를 그만두고 2005년 9월1일부터 지속적으로 알러젠이 제거된 옷나무 抽出物(ARV: Allergen Removed Rhus Verniciflua Stokes)을 복용하였다. 2004년 4월 19일, 2005년 10월 14일, 2007년 2월 2일 총 3회에 걸쳐 Chest CT 영상을 관독한 결과, 종양크기의 감소와 컨디션의 향상이 관찰되었다. 비록 2005년 5월경부터 chemotherapy 4회를 실시한후 중단하고 2005년 9월부터 한방치료를 시작하였으므로 2005년 10월 14일의 영상결과에 옷나무 抽出物(ARV)만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2005년 10월 14일과 2007년 2월 2일의 영상결과에서 tumor의 크기가 10.01mm에서 4.01mm로 현저히 감소한 점은 주목할 만하며, 종양 치료에 있어서 옷나무 추출물(ARV)와 Chemotherapy 병행 치료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있다고 하겠다.

상기한 바와 같이 그동안 여러 *in vivo* 또는 *in vitro* 연구를 통하여 종양에 대한 옷나무 抽出物(ARV)등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뤄졌지만, 옷나무 抽出物(ARV)을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증례보고는 드문 상태에서 폐전이된 유방암 환자에게 실제 적용하여 양호한 치료결과를 보였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 IV. 結 論

본 증례의 著者は 2000년 12월1일 Lt. breast ca (invasive ductal cancer) stage II 진단받고

MRM(modified radical mastectomy)시술 과 chemotherapy, radiation therapy 받은 후 2004년 4월 lungmets 진단, 2005년 5월 pleural effusion 있어 chemotherapy 받던 중 중단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알러젠이 제거된 옷나무 抽出物(ARV: Allergen Removed Rhus Verniciflua Stokes)을 移用한 韓方治療를 실시하여 良好한 結果를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 參考文獻

1. 이유경, 김재원, 강순범. 유방암 생존자의 산부인과적 대처 방안. 대한산부인과학회지. 2007;50(6):821-822p
2. Bray F, McCarron P and Parkin DM. The changing global patterns of female breast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Breast Cancer Res 2004;6:229-39.
3. 노동영 등. 유암의 임상적 고찰. 대한외과학회지. 1991;23;410
4. American Joint Committee on Cancer. 2002
5. 박준, 윤정환, 제갈영중. 유방암 치료에 있어서 CMF 화학요법의 효과, 대한암학회지. 25(6):928-934,
6. 이재진. 유방암 치료의 내과적 고찰. 경희의학. 2004;20(2):92-96
7. Bonadonna G, Brusamolino E, Valagussa P, Rossi A, Brugnattelli L, Brambilla C, et al. Combination chemotherapy as an adjuvant treatment in operable breast cancer. N Engl J Med, 1976;294:405-10.
8. Early Breast Cancer Trialists' Collaborative Group. Tamoxifen for early breast cancer: an overview of the randomised trials. Lancet 1998;351:1451-67.
9. 許浚. 東醫寶鑑 外形偏. 서울. 대성문화

- 사. 1992, pp407, 414
10. 김성란, 유동렬. 유암환자 치험1례에 대한 임상보고.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2005;14(2):189-195
  11. 김정범, 안규석. 유암의 (乳巖) 병리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4; 9(0):189-207
  12. 여성원, 서정철, 최영현, 장경진. 봉독약침액에 의한 인체유방암세포의 성장억제 및 세포사멸에 관한 연구. 대한침구학회지. 2003;20(3):60
  13. 손윤희, 조현정, 김미경, 정은정, 남경수. 단삼 에탄올추출물이 유방암 예방 및 전이에 미치는 영향. 생약학회지. 2007; 38(1):62-66
  14. 서정민, 유동렬. 청간해울탕의 (淸肝解鬱湯) 소염, 진통, 면역세포 및 유방암세포에 미치는 영향. 1997;10(2):69-83
  15. 최원철, 이재호, 이은옥, 이효정, 윤성우, 안규석, 김성훈. 법제 윗나무 추출물의 혈관형성저해 및 항암효과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6;20(4):825-829
  16. Kim JH, Kim HP, Jung CH, Hong MH, Hong MC, Bae HS, Lee SD, Park SY, Park JH, Ko SG. Inhibition of cell cycle progression via p27Kip1 upregulation and apoptosis induction by an ethanol extract of *Rhus verniciflua* Stokes in AGS gastric cancer cells. *Int J Mol Med*. 2006 Jul;18(1):201-8
  17. Kitts DD, Lim KT. Antitumorigenic and cytotoxic properties of an ethanol extract deriv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RVS). *J Toxicol Environ Health A*. 2001 Oct 26;64(4):357-71.
  18. Lee SJ, Oh PS, Lim K, Lim KT. 6 kDa glycoprotein isolat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inhibits G/GO-induced mitochondrial apoptotic signal pathways in BNL CL.2 cells. *Basic Clin Pharmacol Toxicol*. 2005 Dec;97(6): 399-405.
  19. Jang HS, Kook SH, Son YO, Kim JG, Jeon YM, Jang YS, Choi KC, Kim J, Han SK, Lee KY, Park BK, Cho NP, Lee JC. Flavonoids purified from *Rhus verniciflua* Stokes actively inhibit cell growth and induce apoptosis in human osteosarcoma cells. *Biochim Biophys Acta*. 2005 Nov 30;1726(3):309-16.
  20. 정중수, 김경석, 박제우, 정현식, 윤성우. 알리젠 제거 윗나무 抽出物 투여로 好轉된 악성흑색종 患者 1례. 대한한방내과학회지. 2007;28(3):655-661.
  21. 송미선, 김윤상, 임은미. 乾漆에 對한 문헌적 考察. 大韓韓方婦人科學會紙. 2002;15(1):60-76